

#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이니 좀 넓게 살아보세요

25면에서 계속

이 나면 눈이 파짝꺼려요.

스님: 이거 봐요. 무섭잖아 천하 없어도 그래도 남편만 가쪽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소리는 질러도 속으로는 그 애뜻한 마음과 금강 여미는 마음, 분노와 그런 게 사무쳐도 그래도 살려야 하는 거는, 책임지는 거는 바로 남편이니까요. 그리고 절대 그런 것 하지 말아요. 그리고 천도식을 했는데 천도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독교를 다니면 부모의 제사도 안 지낸다는데 나는 재사지내라는 거를 밥 떠놓고 물 떠놓고 반찬 해놓고 그리고 지내라는 게 아니냐.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생각할 때, 또 자기도 자식을 기를 때, 자기가 자식을 기른 그 은혜를 생각하게 안 해주면 그 자식들은 길러 뭘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노릇 할 때 그 은혜를 입은 거를, 은혜를 꼭 갚고자 해서가 아니라 그건 자동적으로 기일을 생각해서 물이라도 떠놓는 게 당연한 일 아니에요? 초, 향, 등그런 떡 세 켜, 당신은 조상들이 많으니까 딱 한 여섯 일곱 켜는 해놔야 되겠구먼.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과일 한 서너 가지 값비싼 걸로 몇 개씩 이렇게 한 그릇에 놓고 그러면 조상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거 영혼이 없다고 봐요? 있다고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종자가 없으면 이 세상에 썩어 나오지 않아요. 영혼의 종자가 있기 때문에 썩어 나오게 되어있어요. 모두 생명들이 생기지. 그런 거로 재생이 돼서 다시 나오게끔 되는 것도 바로 자기의 종자 때문이야.

그러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인공, 이 모든 영령들의 조상님들이 한자리하게 하소서, 그리고 밝고 깨끗한 한자리를 하게 하소서.' 한울이니까요. 하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모두 한울이예요. 진리는 하나로 돌아가요. 그런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이나 주님이나 했지. 주님은 당사자예요. 모두 자기로부터예요. 그러니까 모두 주님이 바깥에 있는 줄 알고 바깥으로 기도하고 애쓰지 말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관하면서 지극하게, 분란 안 나게 당신만이 할 수 있다고 관하고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팔짝 뛰지만 나중에 다수그러져요.

질문자4(여): 감사합니다.

스님: 그래야 마음 편안하게 자식도 기르고 마음 편안하게 살지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겠수, 그거.

질문자4(여): 포장마차를 하겠습니까.

스님: 포장마차 해가지고도 이리 끌러다니고 저리 끌러다니고 힘들 텐데...

질문자4(여): 가게에 있습니다. 가게 안에...; 그림 뒤를 해야 할까요?

스님: 그 뒤를 하려고 그러는데?

질문자4(여): 다시 저는 겁이 없고 싶은데 그 장소가 포장마차 장소거든요.

스님: 그래, 그림 그것쯤은 돼, 가봐요.

질문자5(남): 제가 오늘 여기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제 처남이 서울대 대학원을 올해 2월달에 졸업을 했습니다. 학부 때 2학년 때부터 행정고시를 계속 쳤는데 일하는 계속 여직했 됐는데 이자는 계속 낙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모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성격도 좀 내성적이고 하나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는지 많은 고민과 번민 갈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이겨

**주인공!**  
**모든 영령들의**  
**조상님들이**  
**한자리 하게**  
**하소서!**

내지 못하고서 지금은 정신분열 현상, 소위 남들이 말하는 약간 미쳤다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가지고 알게 된 것은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본인이 견디다 못해가지고서 3일 동안 잠을 못 자다가 제 처한테, 누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그 이후로 여기 계신 스님도 만나뵈게 해가지고 상담도 시켰었고 또 저 나름대로 스님한테 배우고 제가 책에서 읽은 대로 주인공 법도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는데 항상 피해광상적으로 어떤 조식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또 항상 자기를 좇아나간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그랬는데 주인공 법을, 부처님 법을 이야기 해주니까 자기를 해치고 그런 게 조금 없어지긴 없어졌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불쌍한 사람들 보면 말 시키고 싶고 그러면 자기가 편하겠다고, 상태는 똑같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가지고 제가 물론 주인공에 저 자신도 많이 관했지만 저 자신 원력도 약하고 수행도 덜 되고 해서 오직 스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써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스님께서 자비할 때쯤은 주세요.

스님: 그거야 본인이 관찰 잘 알게 리드해 줘야죠. 그거는 자기 신경에 의해서 이 속의 의식들이 발동을 한 거니까요. 속의 의식들이 자꾸 자기 마음을 타고 나오는 거니까요.

질문자5(남): 지금 주인공 법을 처남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가지고 제 힘으로 좀...

스님: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해결을 해요. 자주 데리고 와요. 어디서 살아요?

질문자5(남): 예, 사당동에 살고 있습니다.

스님: 그 사람 부인은 없어요?

질문자5(남): 예,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스님: 그럼 데리고 올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그러세요.

질문자5(남):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칠월달에 스님을 친견을 했습니다. 저도 두번째로 친견을 하게 됐습니다. 저 나름대로 많은 믿음을 가지고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스님을 믿고 마음속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수많은 눈물도 흘려왔고, 스님의 그 자비를 생각하면 아침 출근길에 눈물 한 방울 흘리고 퇴근길에 전철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흥흥정유라고 스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수박씨라든가 콩씨, 참깨씨, 법문에 많이 인용되는 그런 걸 다루는 회사입니다. 스님께서 많은 법문을 주셨지만 제가 아직도 많이 미약하기 때문에 마음의 뜻으로써 외도는 것보다는 말로써 여러 가지들 해결하고 말로써만 스님 말씀하신 거를 영무새처럼 한테 떨어지게 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 뜻이 제 뜻이 될 수 있도록 스님께서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스님: 난 이렇게 말하고 싶군요. 당신의 불성이 나 내 불성이냐 둘이 아니예요. 그런 까닭에 자기 불성이 있는 이상, 자기 주인공이라고 하는 게 불성이라고 하는데 주인공은 움직여지지 않고 에너지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심봉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수레와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심봉한테 맡겨요. 거기가 해야지 에너지가 배출되지 그렇잖으면 배출이 될 수 없죠. 남한테다가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아무리 이 물질이, 물질을 가지고 부처님 형상이 계시면, 대의 형상으로 부처님 형상만 믿고 이리다만 안 돼요. 그거는 에너지가 배출될 수도 없고 에너지가 공급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의 형상도 부처님 형상과 둘이 아니요. 마음도 둘이 아니요. 생명도 둘이 아니라 이거야.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한 거예요. 법당에 들어오나 나가나 항상 같이 하는 거. 같이 중심을 타고 하는 거, 그 심봉이 이 몸뚱이 속에 있는 생명들을 다 이끌어내요. 다스려서 이끌어내간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의식적으로 이 생각으로 나오는 거는 다 그냥 거기다 맡겨버려요. 자기 주

인공한테다 다 맡겨버리고 너만이 할 수 있고, 너만이 지켜줄 수 있고, 너만이 해결할 수 있고, 너만이 가정을 이끌어 줄 수도 있고 너만이 내 성질을, 대의 성질이 좀 과격해요. 그러니까 '그것 죽이는 것도 너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착하게 마음을 쓰게 하는 것도 너밖에 할 수 없다.' 모든 거를 그렇게 해나가보세요. 그러면 오다음엔 또 달라질 텐데니까요.

질문자6(여): 스님, 가까이서 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 하고 제가 관하

**모두가**  
**한울이니까**  
**밝고 깨끗한**  
**한자리를 하게**  
**하소서!**

고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새 인연 두 사람을 데리고 같이 오느라고 오늘은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2층에 있었는데 곱탕 얘기 하시는 그 분이 말씀하실 때 갑자기 3층에서 저를 끌어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늦게 올라왔습니다. 스님.

스님: 조금 가까이 앉아서 해요.

질문자6(여): 제가 하는 방법이 맞는지 스님께 여쭙어 보고 싶어요. 처음에 제가 선원에 나올 때부터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나와서 그런지 제가 지금은 아주 결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일에서 어떤 경계가 닦혔을 때 항상 저를 위해서 먼저 관하는 것 같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어떤 상황이건 어떤이건 그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혼돈이 되지 않아서 내가 할 역할을 하루하루 잘할 수 있게 되기를 그걸 가장 먼저 관하는 것 같습니다.

오빠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녹내장이 와서 작년 9월부터 한쪽 눈이 거의 실명이 되고 또 한쪽 시력이 자꾸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 대구로 발령이 나서 저희 집에 같이 있게 됐는데, 저는 오빠가 처음 올 때 참 괴로웠습니다. 스

님, 어떻게 오빠를 보면서 제가 맡은 역할을 다 해낼 수 있을지 해서 그 부분을 참 많이 관하고 있었는데...

스님: 이거 봐요. 말을 듣다 보니까 말만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빠한테 책자 조그만 것 주고 관하는 거 가르쳐줘요. 대구에서 왔다 그랬나요? 음, 그럼 대구지원에 나가게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 마음의 구원을 받으면 생활의 구원도 되고 자기의 모든 전체가 구원이 되는 거지요. 눈도 그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소금 없으면 못 살죠. 아침에는 차약으로 두고 저녁에는 칫솔로 소금을 찍어서 두고 그러고선 소금을 조금 물에 타가지고선 눈에다 씻으면 그렇게 눈도 여든 살이 먹도록은 하나 나빠진 일이 없대요. 그리고 잇몸 하나 나빠진 일이 없대요. 항상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 눈 씻는 것도 따뜻한 물에다 그렇게 하라고 시키고, 관하는 법도 시키고, 그러면 당신한테 집도 안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당신도 당신을 위해서 관을 하면 가정이 다 좋게 되는 거지요. 당신 하나만이 아니예요. 내가 좋아지면 상대가 좋아지고 상대가 좋아지면 내가 좋아지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부족하면 안 돼요. 좀 넓게, 툭 아니게, 둥글게, 그렇게 여유있게.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 이렇게 살아도 한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세상인데 좀 넓게나 살아보자 하고 말이에요. 즐겁게 웃고 살자. 항상 사계절이 다처럼 봄과 같이 살자. 그러면 내부의 모든 생명들의 의식도 그걸 따라줘요. 그러니까 항상 그대로, 그대로 봄이 오고, 봄이 와서 봄이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봄이 온다고요. 당신네 불성을 그렇게 믿지들 못해요? 진짜로 믿어봐요. 진짜로 보아야. 그렇게 해보고 또 와요, 응?

질문자6(여): 스님, 지난번에 오빠하고 같이 스님을 한 번 친견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아채스프랑 소금물로 닦는 걸 제가 그냥 지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뜻한 물로 해야 됩니까? 저는 찬물로 하고 있는데요.

스님: 좀 일러줘라. 그렇게 일러줘. 씻는 것도 일러주고.

질문자6(여):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 그리고 그거 먹을 때 피로회복제도 같이 먹고요. 오늘... 하하하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갈피도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먹는 분들이 잘 집속고 소화도 잘 시키시고 그대야만이 앞으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영원히 도반이 됩시다.

\*위 법문은 1997년 4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무량종  
**입 종 안 내**

불교 정법을 수행정진 하면서 본 종단 종지종풍을 지키고 뜻을 같이할 참신한 승려나 법사 행자 입종을 바랍니다.

◆입종구비서류

- 입종신청서(제반서류 충무원 비치)
- 주민등록 등본 ..... 1통
- 호 적 초 본 ..... 1통
- 승려 증명서류 (전종단 재적등본 또는 승려증, 사찰등록증, 사본)
- 이 력 서 ..... 1통
- 여권용사진 ..... 4매
- 사찰전경사진 (내 외)

대한불교 무량종 충무원 총본산 지리산 칠보정사  
·주소: 경남 하동군 저량면 서리 550번지  
☎ 055)883-7771, 7790, 7714 / 팩스 883-7796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도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향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 (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 (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중앙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한,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대출’ 이 필요하십니까?**

.....

불교 관련 전문 대출 기관

**사찰 매매 잔금 대출**  
**불사 자금 대출**  
**기타 대출 상담**

**재무부인가 제 9-205호**

- ☐ 문의전화 : 053)426-1037
- ☐ 전문상담 : 서일영 전무 C.P 011-527-1037

**「대구」**  
**보현사신용협동조합**

**전자식 2종문 3중경보 특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던뜨면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록 법상

**서원불교 톨 043-647-2378, 011-467-1472**